

다시 쓰는 하나님의성회 교리 20 김은철 목사 // 아가페교회 담임, 교단 신학국장(Ph.D)

## 제7장 성령세례 ③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받은 은사체험을 가리키는 반면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로 구원체험과 부합되는 것이다. 누가는 중생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자들의 오순절 체험이 그들의 중생에 후속적인 것인가? 만약 이 제자들이 성령의 부으심 이전에 죽었다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반대의 논증을 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 신약에서 나타나는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오순절날 이전에 중생을 체험했다.

### 사마리아의 오순절(행 8:14-20)

사마리아인 회심자들의 체험은 후속성의 교리를 잘 예증하는 사건이다. 이 부분이 오순절주의자들에게는 분명한 증거이지만 비오순절주의자들에게는 답변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행 8:16)고 기록되어 있다.

에우살립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행 8:14)는 것을 들었다고 누가는 말한다. 이 표현을 연구하면 진실한 회개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고넬료와 그의 집안사람들의 회심을 말하는 사도행전 11장 1절과, 베로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도 나타난다. 그 다음 구절은 이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문제에 관한 누가의 용어와 바울의 용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받은 은사 체험을 가리키는 반면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로 구원체험과 부합되는 것이다. 누가는 중생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다스의 바울(행 9:17)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와의 최초의 만남이 있었다(행 9:1-8; 22:4-11; 26:12-18). 삼일 후에 그가 경건한 아나니아의 방물을 받았

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9:17).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사울의 회심체험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입장은 최초의 성령세례가 중생체험의 한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회심했다는 견해를 반대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논평과 설명이 적절하다.

(1)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예수를 만난 회심의 체험이며, 다메섹에서는 바나바를 통해 선교사역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위임을 가리킨다(행 26:16-18).

(2) 아나니아는 그를 가리켜서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의미 아니라 단순히 동료 유대인을 부르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의 죄를 씻음을 상징한다(행 22:16).

(4) 아나니아의 안수는 사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체험한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8:17). 안수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제시된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5)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다"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다"라는 동의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6) 사울의 회심과 그의 성령충만의 체험 사이에는 삼일 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행 10:44)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는 그와 그의 집안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절정에 이른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방문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으로서 이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수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했다(행 10:43).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응답했다. 이와 동시에 그

들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은 것과 유사한 성령의 특별한 부음을 체험했다(행 11:17; 15:8, 9).

(1) 어떤 오순절주의자는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방문 전에 구원받았다는 견해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a) 베드로는 그들을 회개나 회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b)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았으며(8:40; 21:8), 혹은 다른 전도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c) 그들은 이미 예수의 기쁨부음 받은 사역의 기초에 관해 알고 있었다(10:37-38).

(2) 어떤 오순절주의자는 가이사랴 사람들이 "동행된 체험"을 가졌다고 말한다. 이 두 체험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분별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가이사랴의 새 신자들의 성령체험은 사마리아인들과 사울의 체험과는 달리 사실상 그들의 구원 체험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본다.

### 에베소 사람들(행 19:1-7)

에베소서의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서로 연관된 중요한 질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누구의 제자였는가? 예수의 제자였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가? (2)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무슨 의미였는가? 우리는 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술하면서 바울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제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 (1) 그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었는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떤 제자들"(행 19:1)을 발견했다. 어느 학자는 누가가 "어떤"(티나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특정한"으로 번역함으로써 의미상 혼동을 불러오게 한다. 누가는 확실한 제자? 아나니아, 도르가, 디모데 - 에 관해서 말할 때 이 단어의 단수형을 사용한다(행 9:10, 36; 16:1). 누가가 "어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19장 7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은 "열두 사람 정도(호제이)" 있었다고 말한다. 누가는 그 정확한 숫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은 "소그롭의 제자들"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다.4

그럼 그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었는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석들을 있다.

(1) 그들은 참으로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첫 번째 질문 속에 암시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오순절 이전 부위에 속했다. 그들은 중생했으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5)

## 신간 안내

### 혼자 설 수 없다면

장애우 내 딸 성은이와 함께한 좌중우돌 일본선교이야기



간증보다 다큐에 가깝고, 에세이보다 소설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적 장애와 척추측만증의 성은이가 밝고 맑은 영혼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저자인 어머니의 기도와 부모님의 긍정적인 교육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장애 자녀에 대해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책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장애 자녀가 집안의 애물단지거나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아이다가 피스메이커인 한혜숙 사모, 그녀가 전해주는 차마 꺼내기 어려운 속내에서 진정한 행복비버스를 감염되리라 믿는다. 이미 스무 해가 지난 이야기지만,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이 행여 퇴색되고 사라지기 전에 글로 남겨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다는 한혜숙 사모. 일본 선교사역지에서 두 딸 성은이와 예은이가 지라는 동안, 너무나 정확하고 세심하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한다.

한혜숙 지음/강경은평화/가격 12,000원

###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혼생활 내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티끌타격 싸움이 시작되고 사랑과 행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왜 그럴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부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 전에 알아야 할 12가지를 소개한다. 결혼에 대한 결정만큼 각자의 삶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결혼에 무작정 돌진하고 본다. 아직 진지하게 만나서 사랑이 없거나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책에서 결혼을 내야 하게 하는 청사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직 결혼을 결심하지 않은 커플에게는 결혼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약혼한 커플은 이 책을 통해 행복한 결혼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결혼에 최선을 다해 온전한 관심을 기울여 당신이 꿈꾸는 달콤한 결혼생활을 누리기를 바란다.

게리 체프먼 지음/김태곤 역/성령의 말씀사/가격 10,000원

###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체험기



일제 치하와 한국 전쟁의 공립함 속에서 중국 땅에 전 세계 최대의 성경 인쇄소를 설립하고 6000만권의 성경을 보급한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최찬영. 최찬영은 해방 후 최초로 1955년 아내 김광명씨와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태국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했고 1979년부터 1992년 은퇴하기 전까지 아시아인 최초로 성서공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무를 맡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았다. 그는 교단이나 한국이라는 국경을 초월하여 아시아의 선교사로 더 나아가 세계 선교사로 사역했다. 주목할 만한 서적 내용은 중국 남경에 이르기까지 금회를 통해 성경 인쇄 공장을 세워 중국어와 그 밖의 소수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발행한 것이다. 2008년까지 6000만권 이상의 성경을 인쇄 보급하였으며, 이는 세계 문서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역으로 평가된다. 2009년 귀국한 그는 부산에 머물며 GEDA 인터넷서원 총재로 섬기고 있다.

임윤택 지음/두란노/가격 13,000원

### 매력적인 교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나는 지점



전도에 관심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한 번 읽어보아야 할 책!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나는 지점, 매력적인 교회! 세계적인 기독교 석학 그레이엄 톨린이 제시하는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새롭고 본질적이며 신선하고 성경적인 관점.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무엇인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전적이며 매력적인 것이 없다면, 모든 전도의 노력은 소구에 경 읽는 식이 된다. 교회가 실제적인 개념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진리'는 쓸데없는 것으로 전락한다. 누군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 크게 소리쳐도 소용없다. 교회는 구도자나 우연히 들른 방문자가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에베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가르침이 있고, 진실한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는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인들이 열심히 친구를 데려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그레이엄 톨린 지음/주상지 역/서로사랑/가격 10,000원

# 합창워크숍 Searching Festival 2011.01

## 2011년 1월 13일(목) ~ 15일(토)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등록안내

- 행사 등록비: 14만원 (신간성가 9권, 지휘자용 노트와 강의교재 및 조직제공)
- 등록비 할인: • 1차: 2010년 12월 30일 까지 사전등록자 2만원 할인  
• 2차: 2011년 1월 10일 까지 사전등록자 1만원 할인  
※ 현장에서 등록시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Festival Choir 모집안내**

파트별 15명씩 60명 선착순(지휘: 하재승 교수/중감예배 찬양)

(연습일정: 1월 13일, 14일 양일 점심시간 30분/오후 3시부터 15분간)

- 사전등록 방법
- 전화: 0502-399-2580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 사무국 / 인터넷: www.kcmpa.org
- 등록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7801-04-017922(하철릉)
- ※입금 후 반드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 접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숙박안내

- 숙박시설 및 숙박비
- 100주년기념관 내 2인실: 1인당 27,000원/박
- 100주년기념관 내 6인실: 1인당 12,000원/박
- 비원호텔 2인실: 1인당 35,000원/박 (행사장에서 도보 5분 거리의 1급 호텔)
- ☞ 선착순 200명에 한해 숙박 가능합니다.

### 행사문의

☎ 0502-399-2580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 사무국

- 합창단, 학교, 교회 제출용 공문은 사무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도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강사진 및 출연합창단

이은우 지휘	이성필 지휘	이재현 지휘	이정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이성우 지휘

| 주최 |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www.kcmpa.org)

| 후원 | 살롱의사, 복음신문, 목양신문, 아름다운 동행

Danm 검색에서 서칭페스티벌 검색 을 누르세요.